

여름철 시민안전, 광주소방이 책임진다

소방안전본부, 풍수해 대비 여름철 시민안전대책 마련 시민수상구조대·폭염구급대 운영 등 구조구급서비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태풍, 폭우, 더위, 불발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적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면 3단계별 출동대를 추가 편성하고 폭염이 지속되면 온열질환자를 위한 29개 폭염구급대가 현장 응급처치에 나서는 등 시민안전 확보에 주력키로 한 것이다.

먼저 여름철 태풍, 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종합대책에 들어갔다.

기상특보에 따라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강?하천 등 취약지 예방순찰과 수방장비 100% 가동유지, 유관기관 협력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력을 운용한다.

또한, 승촌보 등 6곳에서 소방공무원과 시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 167명이 배치돼 유사시 인명구조 수변 순찰 활동, 위험지역 통제 등 시민안전에 한층 강화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수난사고에 대비, 지난 6월 담양호에서 구조대원 90여 명이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0년간 풍수해와 관련해 108명을 구조했고

침수지역 배수지원 496곳, 가옥과피 등 안전화보 7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 119신고 폭주 비상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승강기 인명구조훈련으로 동시 다발적인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발집제거 등 비긴급을 요하는 생활안전 구조요청도 많아짐에 따라 생활안전대원은 정비 시용훈련 사고 사례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5개 소방서 29개 구급대를 폭염구급대로 전환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폭염구급대는 구급처에 폭염장비를 갖추고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 폭염대비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해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9명으로 7월, 8월에 16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19산악구조대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산악사고 현장에서 출동거리와 응급처치시간 단축으로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탐방객에게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친다.

또한 '무등산 산악사고 구조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탐방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및 현장대응훈련도 실시한다.

마재운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은 광주소방이 존재하는 이유이다"며 "광주소방은 시민 입장에서 재년에 한 발 앞서 준비해 시민이 안전하고 살만한 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교육가족과 함께 토크 콘서트 장만채 교육감, 학생들 미래 위해 교육공동체 협력 당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 13일 무안고등학교에서 장만채 교육감과 도내 학생,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교육의 희망: 거점고등학교'라는 주제로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KBC 특집토론 프로그램으로 '전남교육의 희망: 거점고등학교'라는 주제로 그동안 전남교육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독서토론교육, 전남형 애플스쿨, 고등학교 교육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장만채 교육감, 조수아 무안고 학생, 강해정 별교상고 학부모, 박진수 나주고 교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장만채 교육감은 "거점고 육성사업으로 농어촌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지역 특색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전국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남형 애플스쿨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보충수업과 이간지움학습을 통합해 방과후 자율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입주 우선협상대상 선정

냉동냉장창고업 등 5개 기업... 물량 창출 및 활성화 기대

여수광양항민공사(사장 방희석, 이하 공사)는 광양항 서측배후단에 입주할 기업 5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6일 여수광양항민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입주 대상 기업을 모집한 결과 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 5개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은 냉

동냉장창고업 1곳, 위험물보관업 1곳, 물류제조업 1곳, 일반창고업 2곳 등이다.

방희석 사장은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이 입주하면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38만㎡(동측 195만㎡, 서측 193만㎡) 중 63%가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며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광양항 물동량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日강제노역 실상 다룬 영화 '군함도' 오는 24일 징용피해자에게 먼저 상영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가 당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징용피해자들에게 먼저 선보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영화 '군함도'의 특별시사회가 24일 오후 7시30분 CGV광주더미널점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영화 완성 소식을

접한 시민모임이 배급사 측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배급사는 26일 개봉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시사회에는 강제노역 피해자 양영덕 할머니를 비롯해 고(故) 오길에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80)씨, 시민모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동구, 상반기에만 95억원 예산 확보

광주 동구는 지난해 183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금·교부세 28억 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30개 사업 국·시비 67억 원 등 모두 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김성환 청장 취임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280여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동구는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적극 연계한 결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 25억 원 ▲남광주시장·조선대 장미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0억 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4억 원 등 모두 30개 사업이다.

서구 명물 운전호수 분수쇼 기지개 켜다

광주 서구가 운전호수 내 음악분수와 바닥분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지역주민들과 호수공원 이용객들에게 다양하고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

201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운전호수의 음악분수 쇼는 많은 주민들이 찾으며 이미 서구의 대표적 볼거리로 자리매김 했다.

최고 40m의 시원한 물줄기가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자아내게 할 정도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인기 명소 바닥분수도 배놓을 수 없다.

남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최우수 기관

광주 남구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통합 성과대회'가 열렸다.

남구는 이번 대회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낙상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뇌병변 대상자를 위한 희망더하기 뇌건강 충전교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통합 프로그램,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권 교육 및 체험 활동과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 등도 이목을 사로잡았다.

북구, 도심과 가까운 전통 산사 찾으세요

광주 북구는 오는 29일부터 10월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무등산의 천년고찰 원효사에서 전통 산사(山寺)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전통 산사(山寺) 문화재 활용사업'은 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해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돼 국비 1천9백만원 지원받았다.

이에 북구는 '원효사, 무등산을 품다'라는 주제로 무등산에 위치한 원효사를 중심으로 고유의 문화유산, 인물 사상, 역사 그리고 유적지 탐방과 인문학 강연, 무형문화재 공연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산구, 윤한봉 평전 북 콘서트 개최

광주 광산구가 故 윤한봉 선생의 평전 <윤한봉>을 쓴 안재성 작가를 초청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북 콘서트를 연다. 북 콘서트는 1부 '윤한봉을 기억하다'와 2부 '윤한봉과 우리'를 주제로 황종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진행한다. 안재성 작가와 민형배 광산구청장 그리고 윤한봉 선생의 조카 윤나실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한다.

윤한봉 선생이 생전에 즐겨 듣고 부르던 '부용산'과 '진도아리랑'을 첼로 반주에 맞춰 놀아때 신명의 김은숙 단원이 부르는 공연도 마련했다.

임행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